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

강사 : 허남린
소속 : 서울대 일본연구소 (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 아시아학과 교수)
주제 : 히데요시의 조선침략과 일본 불교-神國思想, 八幡神仰,御靈神仰
일시 : 2005. 5. 17. 화

☞세미나내용

1. 임진왜란에 관한 연구
   (1) 의의
   동아시아의 많은 학자들이 임진왜란을 동아시아의 전근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었으며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고, 많은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
   (2) 연구현황
   *한국-의병과 이순신을 중심 테마로 하여 연구가 활발하지만,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연구한 성과는 아직 미흡하며, 임진왜란 연구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
   *일본-기록 문화가 발달한 일본은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 역사가 길며 연구 성과 또한 많다
   *서양-존재하긴 하나 거의 없음
   *한,중,일간의 자료공유가 힘들고 연구자가 부족하여 연구가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
   ex>한국에는 의병이나 이순신에 관련된 자료가 풍부하여 그 부분에서만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으며, 일본에 풍부한 자료가 있으나 한자로 씌여 있지 않아 해독의 어려움이 있다.

2. 임진왜란과 신국 사상과 일본 불교
   (1) 신국사상과 밀리터리즘
   -임진왜란을 논할 때 왜 신국사상과 밀리터리즘의 개념이 들어가는지
   ->임진왜란은 유교적 문화를 고수하고자 하는 조선, 중국과 일본의 신국, 밀리터리즘이 충돌해서 발생한 전쟁이다. 이러한 대칭 구도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청일전쟁이나 6.25 등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.
   -밀리터리즘의 구조적 한계에서 나타난 신국사상
   ->히데요시는 체제전복에 대한 지위불안을 극복하고자 천황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거기에 접근하고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려 했다.
   (2) 神國思想, 八幡神仰, 御靈神仰 과 불교

지금까지 신국사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, 八幡神仰, 御靈神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.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신국사상을 앞세워 조선을 침략하였고, 불교는 八幡神仰, 御靈神仰 을 수단으로 신국사상의 집행기관 역할을 하였다.

3. 神國思想-신국사상의 전개와 관련된 불교의 역할

(1) 승려의 활동상

선종계통의 승려들의 정치적인 활동이 활발하였다. 승려들은 히데요시의 최측근의 막료로서 무역업과 외교, 군사 지휘 등의 분야에서 활동했다.

(2) 불교가 신국사상의 앞잡이 역할을 한 증거자료

-1587년 6월 19일 선포된 히데요시의 선교사 추방령

->불교는 기독교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배타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

-1591년 7월 25일 기독교포교 허가를 청하는 포르투갈령 인도 총독의 탄원에 대한 답서

->일본의 자국중심 세계관의 이론적 배경

-1593년 6월 28일 히데요시가 명에 제시한 조목

->일본 통일 과시, 명정복의 이유, 일명 강화교섭 내용으로 천황에 대한 신국적 규정을 하고 있음

-1597년 7월 27일 히데요시가 스페인령 필리핀제도 장관에게 보낸 서신

->타국에 대한 우월감 강조

4. 八幡神仰

* 전통적으로 일본 무사의 수호신으로 모셔져 온 八幡대보살에 대한 신앙

-1592년 4월, 임진왜란에 앞서 나고야성에 14~15만명의 병력이 집결했는데, 나고야로 향하던 병사들은 **箱崎**八幡신사에 들러 무운장구를 기원하였다

-**箱崎**八幡에서의 기원은 八幡대보살에 대한 참배이다.

-八幡대보살: 임신중에 군대를 이끄로 삼한정벌의 위업을 달성한 신화의 주인공 神功황후의 아들인 應神천황으로, 아버지는 일본황실의 기원인 仲哀천황

-당시의 조선침략이 일본군이 의식에 있어서는 삼한 정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침략을 신공황후전설에 연결시킨 기록이 많음

5. 御靈神仰

*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램으로써 화를 면하고자 한 신앙

-임진왜란에서 패한 일본은 1597년 3월에 정유재란을 일으켜 조선반도 남부를 피로 적셨다. 그 참상을 대표하는 잔학 행위는 '코베기' 였는데, 일본으로 배달된 조선인의 코는 지금 '귀무덤'으로 알려져 있는 무덤에 묻히고 비가 세워졌으며, 희생자들의 위한 공양의례가 행해졌다.

- 비석의 내용에서 히데요시의 불교적 자비심을 말하고 있으나, 이는 죽은 자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남아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여 행한 진혼의례였다

6. 임진왜란과 불교

-전쟁과 종교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나, 실제로는 불가분의 관계

-불교는 직접 전투행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, 정치권력의 종속변수로 남아 전쟁의 배후에서 이를 지원하고 합리화,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